

구강 질병이란



이 승 우

머릿말

구강이란 기능적으로 보아 우선 음식을 섭취하고 약간의 소화작용도 시작되는 소화기관이며, 특히 코가 막히는등의 이상이 있을때 호흡기로서 기능을 발휘해야 되며 또한 회노에라의 감정 표시와 의사를 표시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작용되며 더우기 언어를 구사하는데 주체기관으로 그 기능이 다양하여 여기에 발생될 수 있는 질병의 종류도 극히 복잡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구강은 발상학적으로 보아도 3개의 배엽이 모다 참여되어 구성되는 기관으로 거의 원인으로 보아 인체에 발생될 수 있는 질병중에 상당한 병변이 구강에 나타나게 되기 때

문에 그 진단과 치료에 있어서도 크게 복잡하게 되어 특별한 진단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과 여러가지 장비가 필요로 되는 것이다.

구강에 나타나는 질병을 크게 경조직 질환과 연조직 질환으로 나눌 수 있으며 우리가 흔히 충치라 일컫는 치아우식증은 각 연령층에 따라 달라지나 한국민 전체를 보아 약 60%가 충치치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치아주위 조직의 질병(동치)는 약 80%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50대이후의 상하임 전체 틀이를 만들어야 할 경우는 약 1.2%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는 점차 증가 추세로 보여지며 이의 예방은 중요한 과제로 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구강에 나타나는 Entameoba Gingualis는 인류가 발견한 최초의 기생충이며 이는 치아주위조직염(동치)의 중요한 원인으로 간주되고 있기도 하다.

구강과 전신건강

구강의 건강은 전신건강의 척도이며 이를 평가하는 창문이라고 할 수 있다. 구강은 전술한 바와 같이 여러가지 병원성 미생물의 침입으로 항상 오염되어 있는 곳이며, 또한 음식물의 저작이나 언어의 구사등으로 쉬지않고 운동하여야 하

며 따라서 계속적인 자극과 적으나마 상처들을 받게되는 곳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잇몸의 질환이 80%의 한국사람에 있음은 놀라운 것도 실상 못된다.

그리고 이같이 만성적인 염증은 잇몸의 염증과, 우리의 음식이 점차 가공 될수록 연하여지고 달아져서 구강에서 오래 씹을 필요도 없을 뿐 아니라 탈기때문에 반사적으로 곧 삼키게 되어 잇턱뼈와 아래턱뼈의 발육에 필요한 적당한 자극이 없게 되어 점차 사회생활이 발달 간편하여짐에 따라 소화기의 일부인 구강은 퇴조를 거듭하게 되어 요지음은 제3대구치(사랑이)가 나울자리가 없을 정도로 턱뼈가 크게 발육 않되며, 이들 치아는 뼈속에 묻혀있는 상태로 오래 가게 되거나 나오더라도 여유없어 주위에 염증을 유발케 되어 이들 모두는 병원성 미생물로 하여금 잘 번식케 하는 요인이며 이는(충치) 치아우식증이 라 잇몸의 치아주위조직염(충치)의 경우 음식을 씹을때 굉장히 큰 압력으로 위 아래의 치아가 부딪치게 되며 이 압력은 치아 끝에 있는 혈관에서 마치 검푸작용과 같이 계속하여 이들 병원성 미생물을 인체에 공급하는 결과가 되어, 류마치스성 관절염, 신장염, 요인이 되며 신장염의 65%의 병원균은 구강의 이를

특별한 병원성 미생물이라고 믿고 있는 학자들이 많이 있다. 또한 여성의 분만의 경우에 있어서도 치아우식증(충치)나 치아주위조직염(충치)가 있는 경우에 약 2배 정도의 출산시의 사고를 갖고 있다고 보고 되어 있으며 고혈압환자의 경우에 이들 환자가 갖고 있는 치아우식증(충치) 및 기타 염증을 제거하여주면 약 10정도의 정상 혈압강하를 기할수 있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외에도 치아우식증은 뿌리끝으로 고름을 유도하게 되는 단계에 이르르면 특히 어린이의 경우는 골수염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으며 상인의 경우 전신진강상태가 좋은 경우에 있어서도 치근단 육종 혈성과 이는 나중에 낭종으로 큰 비례로 발전하며 이들 낭종은 다시 범양아세포종이나, 증충평편상피세포종으로 되는 수도 있어 이는 조키치료가 지극히 요구되는 것이다. 여하간 이들 질병으로 자연치아를 상실하여 위와 아래 전체를 이를하여야 될 환자가 50에대서 약 1%에달한다고 하며 이외에도 부분들이 환자는 그 수가 훨씬 높다고 보아야 되며 이들 틀이정착이 기능적으로 저작이나 언어구사에 회복율이 극히 불량하다함은 기지의 사실이다. 위아래 전체틀이를 했을 경우 이상적인 상태라 가정한다 하더라도 50

% 이하의 기능회복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되기 때문이다.

맺 음

구강은 그 다양한 기능과 구조로 인하여 인체에 발생하는 여러가지 질병을 미리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홍역이나 당뇨병 등은 구강에서 그 조기증상이 발견된다.

고로 어린 시절부터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구강의 병변과 이상에 관심을 기울임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하고, 발견된 병변은 조기에 처치 함으로 가능한 이차적인 다른 병변의 발전을 막아야겠다.

<필자=서울대 齒大교수·대한구강내 과학회장>

口腔 보건 관리



金 鍾 培

口腔(구강)에 발생하는 주요질환 으로서는 齒牙齶蝕症(치아우식증) 과 齒周組織疾患(치주조직질환), 부정교합, 언쟁이, 구강암, 구개파 열등이 있다.

이중 치아우식증과 치주조직질환 은 치아를 뽑게 하는 가장 주된 구 강병으로서 疼痛(동통)과 다양한 후유증상을 가져오므로 그 예방과 관리가 중요하다.

치아우식증이란 흔히 충치라고 알고 있는 병을 말하는데, 이는 치아의 무기질이 탈퇴되고 유기질이 파괴되어 치아조직의 결손을 초래 하고 때로는 심한 통증을 유발시킨 다.

당신은 혹시 다음과 같은 증상을 갖고 있지 않 습니까?

1. 치솔질을 할때나 과일을 먹을 때 피가 나지 않습니까?
2. 입에서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3. 잇몸이 붓거나 붉게 변하지 않습니까?
4. 잇몸 사이에서 농이 나오지 않습니까?
5. 치아가 움직이든지 사이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6. 잇몸이 내려 가든지 치아가 시지 않습니까?
7. 피곤할 때면 치아와 잇몸이 들뜬 기분이 드시지 않습니까?